

즉시성 개입에 필요한 상담 역량: 개념도 방법을 중심으로*

라 수 현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교수

김 창 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교수

즉시성은 상담관계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상담성과를 만들어 내는 상담의 고급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즉시성의 특성 때문에 상담자들에게 교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념도 방법을 통해 상담자들이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0명의 숙련 수퍼바이저들의 인터뷰를 통해 45개 역량의 항목들을 도출하였고, 8명의 숙련 수퍼바이저들이 도출된 항목들에 대해 유사성과 중요도 평정을 실시하였다. 다차원적도와 군집분석 결과 최종 개념도는 2차원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로축의 우측이 ‘개인내적 역량’, 좌측이 ‘상호작용 역량’, 세로축의 상단이 ‘체험 기반 역량’, 하단이 ‘이해 기반 역량’이었다. 2차원의 축을 기반으로 한 군집은 총 4개로, 개인내적-체험 기반의 ‘자신의 체험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음’, 대인관계적-체험 기반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와 관계를 조율할 수 있음’, 대인관계적-이해 기반의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 개인내적-이해 기반의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즉시성이 상담에서 갖는 관계적 의미와 본 연구의 상담자 교육 및 훈련에서 갖는 의미, 한계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즉시성, 상담자 교육, 상담 역량, 상담성과

* 본 연구는 2020년도 차의과학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임.

† 교신저자 : 김창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7633, E-mail: cdkim@snu.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초심상담자로 하여금 상담에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은 상담 교육자에게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명확히 개념화하면서 동시에 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는 상담 교육자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개입 기술 중에서 상담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고급 기술에 속하는 즉시성(Immediacy) 개입을 연구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상담자로 양성하는 한 가지 방법에 접근하고자 한다.

즉시성은 치료 회기 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혹은 내담자와 관련된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치료 관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여기(here and now)에서 상담자-내담자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함께 상의하고 다루는 것으로 정의된다(Hill, 2014). 여기에 Kuutmann과 Hilsenroth(2012)는 치료관계의 이자적(dyadic) 특성을 잘 포착하기 위해 즉시성의 정의를 '치료 회기 내에서 지금-여기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관해 이야기되는 모든 담화'로 확장하였다. 즉시성으로 볼 수 있는 담화에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에 관한 정서적 반응을 회기 내에서 표현하는 것,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이나 상담자에 관한 반응을 탐색하는 것,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확고히 해주고 타당화해주는 것, 상담자가 상담 관계와 외부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 사이의 평행 관계에 대해 탐색을 촉구하는 것 등의 다양한 현상이 포함된다(Mayotte-Blum et al., 2012). 보통 즉시성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언어화 되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거나, 상담 관계를 조율 및 강화,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혹은 갈등 중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바람

직한 방법을 모델링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곤 한다(Hill, 2014). 따라서 즉시성은 모든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상담 기술로 메타커뮤니케이션, 관계적 사건, 치료적 관계에 대한 프로세스, 지금-여기, 생생한 작업, 현재-초점 작업에서 지금-여기에 관한 담화 등의 용어들이 즉시성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들이다.

즉시성은 상담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담 개입으로 알려져 있다(Hill, & Knox, 2009). 즉시성은 성과 변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공통요인(common factor)인 상담관계(Horvath, & Bedi, 2002; Horvath, Re, Flückiger, & Symonds, 2011)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개입이다. 상담관계가 어떻게 기능하여 상담 성과를 만들어내는지는 밝혀진 바가 적지만(Hill, & Knox, 2009), 상담자와 연구자들은 즉시성이 상담관계를 회복시켜 상담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즉시성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인식하도록 돕고, 교정적 정서 경험을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 패턴을 학습하게 만들며(Hill, & Knox, 2009; Safran, & Muran, 2000; Teyber, 2006),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에 결렬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Egan, 2013; Hill, et al., 2003; Rhodes, Hill, Thompson, & Elliott, 1994; Safran, Muran, Samstag, & Stevens, 2002). 상담자 개방과 즉시성의 효과에 대한 최근의 질적 메타 분석 연구는 21개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즉시성이 내담자의 정신건강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으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며, 상담관계를 강화시키고, 내담자의 개방성과 즉시성 사용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Hill, Knox, &

Pinto-Coelho, 2018). 한편, Iwakabe와 Conceicao (2016)는 속성-경험적 역동치료(accelerated experiential dynamic psychotherapy: AEDP, Fosha, 2006)를 진행한 사례에서 즉시성이 내담자들로 하여금 정서를 생생하게 경험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성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자들은 즉시성이 치료적 관계의 문제를 처리하거나 불편한 순간들을 해결하는 역할도 하지만, 내담자의 정서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내담자의 변화에 더 핵심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성과에 대한 즉시성 개입의 특성과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즉시성은 특히 결렬의 위기, 갈등의 순간에 이를 해결하고 상담관계 및 작업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상담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둘째, 즉시성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재연되는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지금-여기에서 다루어 교정적 관계 경험(Castonguay, & Hill, 2012; 라수현, 2022)을 통해 적응적인 대인관계로의 패턴 변화를 촉진한다. 셋째, 즉시성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지금-여기를 다룸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생생한 정서 체험을 유도하여 내담자가 가져가는 변화에 더 큰 영향력을 부여한다. 특히 세 번째 기능은 신경과학의 측면에서 즉시성이 신체적 감각과 감정에 두는 상향식 접근자(Wallin, 2007) 우뇌가 지배하는 차원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Ogden, Pain, Minton, & Fisher, 2005; Schore, 2005; Van der Kolk, 2006; Wallin, 2007에서 재인용). 연구자들은 뇌의 비언어적인 영역에 새겨져 있는 외상 등의 정서적인 경험들은 언어적으로만 다루어서는 소용이 없고 반드시 비언어적인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다룰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시성은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에 연합되어 있는 부적응적인 정서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새로운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변화를 유도하고 공고히 하도록 작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시성은 그동안 초심 상담자들이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상담 기술 중 하나로 꼽혀왔으며(Egan, 1976; Hazler, & Barwick, 2001; Turock, 1980), Carkhuff, Pierce와 Cannon(1977)은 “상담에서 가장 상위의 기술”(p. 201)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즉시성은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잘못된 상황이 되거나 갈등을 만들 수 있고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술이기도 하다(Hazler, & Barwick, 2001).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즉시성의 강력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상담 교육자들 역시 교육하기 어려운 기술로 인식해왔다(Wheeler, & D’Andrea, 2004). Wheeler와 D’Andrea(2004)는 즉시성을 학습하거나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로, 초심 상담자들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전문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구분하여 다르게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친근하고 사회적인 관계인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즉시성을 사용하여 내담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이 틀리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로, 즉시성 개입은 본래 이해하고 사용하기에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시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문제가 상담자의 대인관계적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Egan, 1976, p. 203). 내담자의

문제를 ‘내용(contents)’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재연되는 내담자의 관계 패턴을 인식하고 상담자가 한 명의 대인관계적 대상이 되어 내담자에게 반응하는 ‘과정(process)’으로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즉시성은 단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층위의 기술들이 숙달되어 있어 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상담자와 연구자들은 즉시성 개입을 교육하고 훈련의 효과를 확인하는 시도들을 진행해 왔다. Wheeler와 D’Andrea(2004)는 수련생들이 즉시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부드러운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Spangler와 동료들(2014)은 강의와 실습, 과제들을 통해 학부생 132명에게 즉시성 개입을 교육하여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는 각자의 자기 효능감 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Hill과 동료들(2020)은 의도적인 연습(deliberate practice) 방법을 적용해 상담전공 박사과정생들에게 즉시성 개입을 교육하고 교육의 효과를 즉시성 개입 사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작업동맹에서의 변화로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 두 연구에서는 모두 즉시성 개입을 교육했을 때, 학생들이 즉시성 개입 사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구체적인 교육방법이나 어떤 교육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제공하지 않았다. 반면 Wheeler와 D’Andrea(2004)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지만, 교육방법이 슈퍼바이저의 대화를 통한 예시 정도로 다루어져 있어 실제로 수련생들이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고 습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

한 기준들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즉시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상담자 교육에 대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세부기술(microskill)들을 습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교육은 상담자의 전문적인 역량의 발달에 중요한 역량들의 훈련을 누락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이다. 그동안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의 상담자 교육 및 훈련은 학교 교육과정의 중심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처럼 상담자들이 상담의 세부기술들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 왔다(Ivey, 1971; Traux & Carkhuff, 2007).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세부기술 훈련 중심의 교육이 상담자들의 역량이나 효과성 자체를 증진시키는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제기하였고(Binder, 2004; Stein & Lambert, 1995; Vakoch & Strupp, 2000),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상담 및 심리치료 훈련이 때때로 해로운 결과들을 불러일으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Henry, Strupp, Butler, Schacht, & Binder, 1993). 이들은 세부기술 훈련에서 빠져 있는 복잡한 임상적 판단 능력을 전문성의 정수로 지적하면서, 상담자의 메타인지적 능력(Byars-Winston & Fouad, 2006; Fauth, Gates, Vinca, Boles, & Hayes, 2007)이나 인지적 복잡성(Morran, Kurpius, Brack, & Brack, 1995; Ridley, Mollen, & Kelly, 2011), 성찰적 능력(Jennings, Hanson, Skovholt, & Grier, 2005) 등을 발달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상담자들이 습득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상담 과정 중에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정보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조직화하여 그 의미

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평가와 개입을 해야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이 상담자 훈련 및 교육에서 주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근 수십년 동안 증가해 온 상담자의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관심과 논의들에서 역량이 상담자 훈련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Ridley와 동료들(2011)은 세 가지 우려를 제기하였다. 첫째는 역량(competence) 아래에서 하위역량(competency)¹⁾들을 구별하고 분류하고 있음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역량의 정의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세부기술 접근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상담 역량들이 치료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담자들에게 필요한 개인내적 과정 같은 역량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들을 잘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는 하위역량들이 행동을 기준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전에 문화적 역량에 대해 제기된 구성주의적 비판(Ridley, Baker, & Hill, 2001)처럼 많은 기준들이 규범적(prescriptive)이라기보다는 기술적(descriptive)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하위역량들이 상담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술하지만, 어떻게 그 역량들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는 상담자들에게 수행에 있어 재량을 허용할 수 있지만, 방향성을 너무 적게 제공해 주는 것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위역량들의 목표를 완전히

놓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전제로 하였다. 첫째, ‘즉시성 개입’이라는 상담의 특정 영역을 제한하여 이 영역에 필요한 상담의 하위역량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메타인지적 기술들을 훈련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Davidson과 Sternberg(1998)이 제안했던 방식과도 같다. 이들은 “메타인지적 기술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을 각각 가르치는 것보다 특정 영역에 필요한 (domain-specific) 기술들을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 같다(p.63)”고 제안하였다. Ridley와 동료들(2011)은 이와 같은 Davidson과 Sternberg(1998)의 제안이 세부기술 각각의 습득을 강조하는 기존의 상담교육의 방식이 상담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합의를 갖는다고 인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즉시성 개입을 실시할 때 요구되는 상담의 다양한 하위역량들은 무엇이 있는지 영역을 즉시성 개입으로 제한하고, 즉시성 개입을 수행한다는 맥락 속에서 하위역량들을 탐색하고 하위역량들간의 관련성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개입 역량(intervention competence)을 나타낸다. Barber, Sharpless, Klostermann, 그리고 McCarthy(2007)는 역량의 일반 역량(global competency)과 제한된 영역 역량(limited-domain competency)으로서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면서, 제한된 영역 역량으로 개입 역량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일반 역량으로서의 의미는 상담사가 개별 하

1) 국내에서는 competence와 competency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역량’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영어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역량’과 ‘하위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위역량들을 습득하면 이것이 상담사의 다양한 개입으로 자연스럽게 퍼진다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제한된 영역 역량이란 특정 개입이나 상담 양식의 맥락 내에서만 표현되는 일반 역량의 하위 집합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반 역량의 관점에서 강조되는 특정 하위역량의 습득 여부 자체보다는 특정 맥락을 고려하면서 하위역량들을 적용하는 능력을 강조하며, 유능한 치료사는 특정 기술을 신중하게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면에서 유연하다는 선행연구를(Binder, 2004; Borkovec & Sharpless, 2004) 인용하였다. 즉, 개입 역량으로서의 즉시성 개입 역량이란 즉시성 개입을 사용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즉시성 개입의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 및 조직화되는 다양한 상담 하위역량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교육에서 사용하는 역량과 하위역량, 세부기술의 개념이 구별되며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상담 역량(counseling competence)은 일련의 하위역량(competency)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하위역량들은 또다시 하위의 세부기술(microskill)들로 구성된다(Kaslow et al., 2004; Marrelli, Tondora, & Hoge, 2005; Parry, 1996; Ridley, et al., 2011). 역량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전문적 영역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능력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며(Kaslow, 2004, p.775), 하위역량들이나 세부기술들을 우수하게 수행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다(Ridley, et al., 2011). 하위역량이란 역량의 하위 구성요소로서, “역량의 입증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Leigh et al., 2007, p.464)”로 잘 실시된(well-done) 수

행을 반영하며, 잘 수용된(well-accepted) 기준들에 비추어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다. Ridley와 동료들(2011)은 하위역량들이 특정 목표를 위해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개별 하위역량들은 치료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경청하기, 반영하기, 해석하기 등의 세부기술들 각각을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거나 혹은 ‘지금-여기에서의 내담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내담자를 감정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등의 하위역량들 각각의 능숙함의 총합이 아니다. 다양한 세부기술과 하위역량들이 연결되고 조직화되어 즉시성 개입의 효과적인 사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성취할 때 치료적인 가치가 생겨나며 즉시성 개입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즉시성 개입에 필요한 역량들은 행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개인내적인 인지적, 정서적 요소들도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잘 실시된 수행을 반영하는 규범적인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탐색 및 규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상담자가 갖춰야 하는 상담 역량으로 ‘반영하기’나 ‘경청하기’ 대신 ‘내담자의 말에 담겨있는 중요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내담자의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다’ 등의 서술이 더 구체적이면서도 성공적인 수행의 기준이 담겨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의 역량들을 탐색하기 위해 탐색 단계에서 즉시성 개입을 성공적으로 다룬 사례를 제시하여 수행의 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참여자인 숙련 수퍼바이저에게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상담의 역량들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개인적 자질, 가

치 및 윤리의 분류별로 구분하여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다음 인터뷰로 수집된 데이터에서 역량의 항목들을 추출할 때 성공적인 수행의 상태를 묘사하는 문장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을 통해 숙련 슈퍼바이저들에게서 상담자들이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치료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역량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개념도 방법은 사람들이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개념들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연구된 바가 적은 주제를 탐색할 때 적절한 방법이다(Goodyear, Tracey, Claiborn, Lichtenberg, & Wampold, 2005). 개념도 방법은 크게 숙련된 슈퍼바이저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단계와 추출한 역량의 항목 간의 통계적인 관련성을 조직화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숙련 슈퍼바이저들은 장기간의 상담 경험을 통해 즉시성 개입의 경험이 많고, 수련생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즉시성 개입에 대한 개념화가 더 발달 되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서영석과 동료들(2013)의 연구에서는 숙련 상담자가 초심 상담자에 비해 즉시성 사용의 빈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인식 속에서 즉시성 개입과 관련된 상담의 하위역량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하위역량들이 즉시성 개입을 수행할 때 서로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 유사성을 바탕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즉시성 훈련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나아가 상담자의 즉시성 사용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수퍼바이저들에게 인

식되는 초심 상담자들이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차원과 군집으로 구성되는가? 둘째, 숙련수퍼바이저들은 각각의 역량 항목들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방 법

연구절차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담자들이 즉시성을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의 항목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숙련된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역시 숙련된 슈퍼바이저들이 추출된 항목들의 중요성과 유사성을 평정하여 항목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인 연구절차는 총 6단계로, 항목탐색 단계가 1-4단계, 항목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5-6단계이다. 1단계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인터뷰 질문지 준비하였고, 2단계에서는 선정된 숙련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역량의 항목들을 추출하여, 4단계 완성된 항목들의 진술문을 감수자에게 검토 받았다. 다음, 5단계에서는 추출된 항목들에 대하여 숙련 슈퍼바이저들이 유사성과 중요도 평정을 실시하였고, 6단계에서 평정 결과를 토대로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즉시성 사용을 위한 역량 항목들을 개념도로 나타내고, 중요도 평정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표 1에 제시된 숙련된 슈퍼바이저 13명으로, 모두 박사 학위와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1급 자격증 소지자였고, 주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개념도와 상담관계에 대한 연구 경력이 있는 주슈퍼바이저 한 명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슈퍼바이저들을 추천받고 제외하는 다른 슈퍼바이저에게 추천을 받고 제외하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별 구성은 여성이 10명, 남성이 3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52.63세 ($SD=4.06$, $range=46-60$), 평균 상담경력은 24.25년 ($SD=4.99$, $range=16-33$), 평균 슈퍼비전 경력

은 17.13년 ($SD=4.01$, $range=10-25$)였다. 항목 탐색을 위해 인터뷰에 참여한 슈퍼바이저는 10명이었고, 유사성 및 중요도 평정에 참여한 슈퍼바이저는 8명이었다. 지향하는 상담의 이론들을 각각 퍼센트로 표시하게 했을 때, 정신역동이 평균 37%로 가장 높았고, 절충주의가 14%, 인본주의가 13%, 계슈탈트가 9%, 인지행동주의가 3%, 문제해결중심주의가 2%, 기독교상담이나 과정기반개입 등의 기타가 18%를 차지하였다. 이론적 지향과 상관없이 즉시성 개입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성 개입 사용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표 1. 숙련 슈퍼바이저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성별	나이	최종 학력	이론적 지향(%)	상담 경력(년)	슈퍼비전 경력(년)	인터뷰	유사성/중요도 평정	
1	2	51	박사	a(50), b(20), d(15), e(15)	27	13	O	O
2	2	48	박사	a(30), g(30), h(40)	22	15	O	O
3	1	51	박사	a(70), b(20), g(10)	25	18	O	O
4	2	48	박사	h(100)	19	10	O	O
5	2	54	박사	a(50), h(50)	31	25	O	O
6	1	46	박사	a(70), b(10), h(20)	16	10	O	X
7	2	57	박사	b(40), e(20), h(20)	25	18	O	X
8	2	52	박사	a(30), g(40)	19	13	O	X
9	2	50	박사	a(50), g(50)	22	16	O	X
10	2	50	박사	a(30), e(30), g(40)	28	19	O	X
11	2	53	박사	a(30), b(20), e(50)	24	20	X	O
12	1	60	박사	a(40), b(30), h(30)	33	24	X	O
13	2	53	박사	a(30), b(30), d(20), f(10), g(10)	27	17	X	O

주. a=정신분석/정신역동, b=인간중심, c=행동주의, d=인지행동주의, e=계슈탈트, f=문제해결중심, g=절충주의, h=기타

로 응답하게 한 결과, ‘나는 평소에 즉시성이 유용한 상담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평균 5점, ‘나는 평소에 즉시성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문항에는 평균 3.8점($SD=0.6$, $range=3-5$), ‘나는 평소에 즉시성 개입을 선호하는 편이다’ 문항은 평균 3.9점($SD=0.7$, $range=3-5$), ‘나는 평소에 즉시성이 중요한 상담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4.9점($SD=0.3$, $range=4-5$)이 보고되었다.

연구도구

연구에 참여한 수퍼바이저들이 즉시성 사용의 역량 항목들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에는 인적사항 항목과 즉시성에 대한 최근 연구들의 정의(Hill, 2014; Kuutmann, & Hilsenroth, 2012) 및 즉시성 개입의 효과 기준(Hill, 2014)을 포함하였으며, 즉시성 사용에 필요한 역량 항목들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즉시성 개입을 나타내는 사례 두 개를 포함시켰다. 사례는 즉시성에 관한 대표적인 질적 연구에서 소개된 즉시성 에피소드(Kasper, Hill, & Kivlighan, 2008)와 Yalom(2010, p.62-63)의 단행본에서 ‘지금-여기’에서의 개입을 나타내는 사례 두 개를 선정하였다. 두 사례는 약 175자의 분량의 축어록 형태로, 첫 번째 사례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즉시성을 사용하여 오히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사례는 상담자가 즉시성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면서 이를 관계 패턴에 대한 통찰로 유도하는 내용이다. 각 사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례가 즉시성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지를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7점: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는 질문을 추가하였으며, 사례별로 각각 즉시성 개입에 대한 상담자의 의도와 개입의 성과 및 기능을 묻는 질문을 넣어 역량 항목을 찾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해당 사례와 같은 즉시성 개입을 하기 위해 상담자가 갖춰야 하는 역량들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개인적 자질, 가치 및 윤리의 분류 별로 브레인스토밍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여 인지적, 정서적, 개인내적인 역량의 요소들이 포괄적으로 탐색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구성된 질문지에 대해서는 상담 관계와 개념도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외부 상담전공 교수 2인에 대해 각각 사례와 질문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김수받는 과정을 거쳤다. 김수를 통해 원래 구성하였던 사례 세 개 중 한 개는 즉시성보다 전이분석에 가깝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삭제하였고, 수퍼바이저들의 즉시성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몰입을 위해 즉시성의 정의와 효과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제시된 사례의 적절성을 평가 결과는 사례 1이 평균 5.8점($SD=0.9$, $range=4-7$), 사례 2는 평균 6점($SD=0.8$, $range=5-7$)으로 모두 적절한 것으로 평정되었다.

자료수집 및 분석

역량 항목 추출을 위한 인터뷰는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사례를 읽고 질문지를 작성하는 시간은 대략 20-30분이었고, 추후 질문 및 답변 시간은 30-40분이었다. 인터뷰에서는 즉시성 개입에 필요한 역량들이 포괄적으로 탐색되도록, 초심상담자들을 떠올리면서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터뷰 과정은 인터뷰

질문지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연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다음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즉시성의 정의와 효과 기준들을 설명한 뒤 참여자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두 개의 즉시성 사례를 읽어보게 한 다음, 사례가 즉시성을 잘 나타내는지 평정하고, 즉시성 개입을 위해 필요한 상담의 역량들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개인적 자질, 가치 및 윤리적 자질의 분류표에 개조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각각 두 개의 사례에 대해서 1) 위의 사례가 즉시성 개입의 특성을 얼마나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2) 위 사례에서 상담자가 즉시성 개입을 통하여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위 사례에서 상담자가 즉시성 개입을 통해 얻은 성과나 혹은 즉시성 개입의 기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위 사례와 같이 내담자의 특정 반응에 대해 상담자가 순간적으로 즉시성 개입을 활용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추거나 혹은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즉시성 개입을 활용하기 위해 상담자가 갖추거나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역량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각 사례에 대한 4)번과 5)번 문항에 집중되었고, 항목추출을 위한 분석 역시 4)번과 5)번 문항에 대한 응답만 포함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고, 녹취록이 작성되었다. 자료분석은 내용분석 중의 하나인 핵심어 분석(Kane, & Trochim, 2007)이 실시되었다. 먼저 상담전공 박사과정생 1인이 질문지와 녹취록에 작성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엑셀에 코딩한 후, 박사과정생 1인과 상담전공 교수 1인이 각자 핵심어를 뽑고 뽑아낸 핵심어를 근거로 문장들을 취합하여 그룹화 및 분류를 진행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코딩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통하여 전원 합의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어 별로 분류된 문장들을 선택하고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49개의 항목에 대하여 질문지 구성에 참여했던 외부 상담전공 교수 1인에게 문장의 명료함, 하나의 요소만 담고 있고 위계는 적절한지 등에 대해 검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45개의 항목을 확정하였다.

다음 단계는 추출된 45개 항목의 차원과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숙련 수퍼바이저들에게 유사성과 중요도 평정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45개의 항목은 진술문의 형태로 각각 명함 크기의 카드에 적혀 제시되었으며, 참여자들은 각 진술문이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대로 분류하였다. 분류할 때의 유의사항은 모든 문장에 대한 범주를 각각 만들 수 없고, 모든 문장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Kane, & Trochim, 2007). 유사성 분류가 끝난 이후에 참여자들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중요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8명의 숙련 수퍼바이저들을 통해 취합된 자료들은 SPSS 통계패키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각 항목에 대한 유사성 평정 자료는 같은 집단으로 묶인 진술문은 0, 다른 집단으로 묶인 진술문은 1로 코딩하여 유사성 행렬을 만들었다. 전체 자료를 취합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차원척도 분석법 중 ALSCAL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결과로 나온 좌표값을 가지고 위계적 군집분석

의 Ward 방법을 실시하여 군집을 분류한 후 개념도를 그렸다. Ward 방법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방법보다 개념도에서 군집을 해석하는 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Kane, & Trochim, 2007).

결 과

숙련 수퍼바이저들이 인식하는 상담자들이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역량 45개에 대해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만든 후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이 2차원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원일 경우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은 0.34로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0.205에서 0.365 범위에 해당하고, 스트레스 플롯을 그렸을 때 처음 크게 꺾이는 지점(elbow)에 해당하여 Kruskal(1964)이 제안한 차원의 수를 선택하는 기준에 부합하였다.

다음으로 다차원척도 분석에서 도출된 2차원일 때의 각 항목들의 좌표값을 바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덴드로그램을 토대로 군집 내 항목들의 유사성, 군집의 개념적 명료성을 고려하여 최종 4개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도출된 군집의 내용을 고

려하여, 군집명과 차원명을 결정하였다. 도출된 차원명은 x 축의 우측 부분, 즉 1사분면과 4사분면이 ‘개인내적 역량’, 좌측 부분, 즉 2사분면과 3사분면이 ‘대인관계적 역량’으로, y 축의 상단 부분, 즉 1사분면과 2사분면이 ‘체험 기반 역량’, 하단 부분, 즉 3사분면과 4사분면이 ‘이해 기반 역량’으로 결정하였다. 각 군집의 명칭은 사분면의 순서대로 군집 1 ‘자신의 체험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음’, 군집 2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와 관계를 조율할 수 있음’, 군집 3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 군집 4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으로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완성한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차원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가로축인 x 축의 우측은 ‘개인내적 역량’, 좌측은 ‘대인관계적 역량’이다. ‘개인내적 역량’은 내담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으로, 지식에 대한 학습이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감정을 다루는 부분들이 해당한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1. 분리와 독립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이 되어 있다.’, ‘28. 상담관계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 이를 자각하면서도 이것에 휘둘러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등이 있다. 반면 좌측인 ‘대인관계적 역량’은 내담자와 관계 맺는 과정에서

표 2. 차원 수에 따른 스트레스 값, R^2 , ΔR^2

차원수	스트레스 값	R^2	ΔR^2
1차원	.57	.22	-
2차원	.34	.47	.25
3차원	.22	.66	.19
4차원	.17	.74	.08
5차원	.13	.8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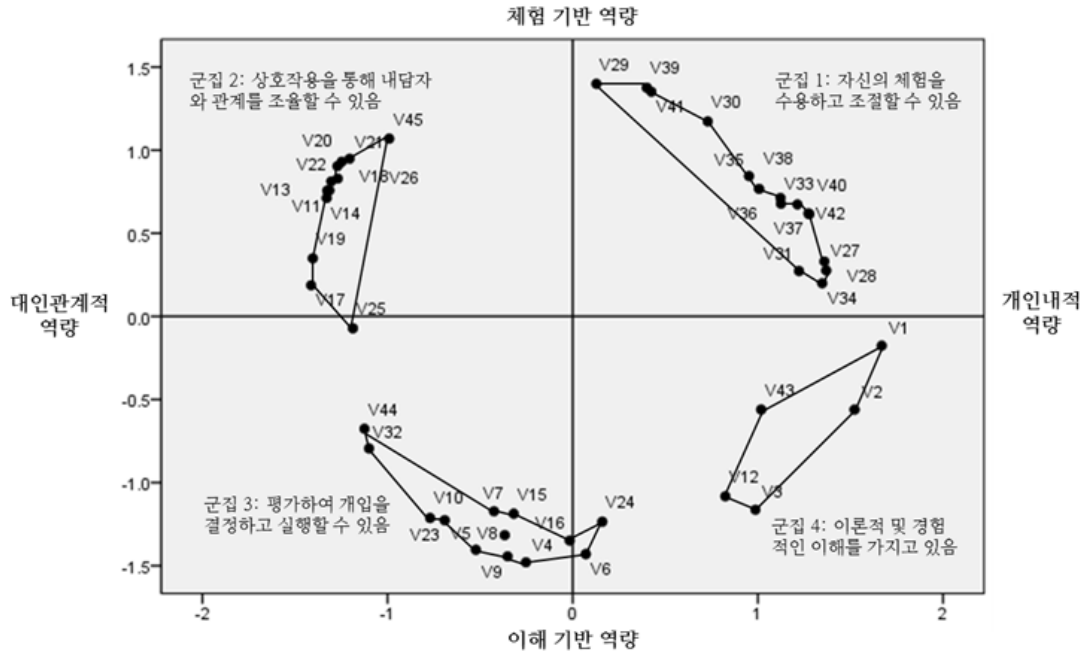


그림 1.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 위해 상담자들에게 필요한 상담 역량의 개념도

이루어지는 수행으로, 내담자와 대화를 주고 받거나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17. 내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32. 심상 등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관계 패턴을 상담 관계 속에서 생생하게 다룰 수 있다.’ 등이 있다. 다음 y축의 상담은 ‘체험 기반 역량’, 하단은 ‘이해 기반 역량’이다. ‘체험 기반 역량’은 상담자에게 체화되어 있어 자기 성찰이나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비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역량들이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29. 상담자의 ‘역할’ 뒤에 숨지 않고 상담자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내적반응을 온전히 자각할 수 있다.’, ‘45.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행동 이면에 자기 실현적인 동기가 있음을 믿는다.’ 등이 있다.

반면 하단인 ‘이해 기반 역량’은 상담자가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의도를 가지고 내담자나 자신의 감정 등의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역량들이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4. 즉시성 개입이 상담에서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다.’, ‘23. 그 순간의 상담 관계의 특성을 내담자가 자신의 일반 대인관계에 적용시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 있다.

다음 네 개의 군집들은 각각 다음과 같았다. 군집 1은 ‘자신의 체험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음’으로 총 15항목이 해당하며, 순간 발생하는 자신의 체험들을 자각할 수 있고 그 체험을 담아내어 조절할 수 있는 역량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량은 상담자가 건강하게 분화되어 있어 타인과의 경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가능한 수행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담자

가 자신의 감정들을 자각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압도되는 대신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역량이다. 따라서 내담자와 함께 있을 때에도 자신의 감정 등이 내담자의 것과 혼재되지 않고 구별되며, 상담자로서 존재하면서 동시에 인간적으로 경험되는 감정들에 대해서도 수용하여 내담자에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29. 상담자의 ‘역할’ 뒤에 숨지 않고 상담자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내적반응을 온전히 자각할 수 있다.’, ‘35. 상담자 자신의 긍정적/부정적 감정들을 수용하고 홀딩할 수 있다.’ 등이 있다. 군집 2는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와 관계를 조율할 수 있음’으로 총 12항목으로 구성되며,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매 순간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 과정을 함께 맞추어나갈 수 있는 역량들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미묘한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고, 이것이 맞는지를 내담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에게 협조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21. 진솔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17. 내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다음 군집 3은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으로 1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담자의 특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즉시성 개입의 적절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이를 실행하는 역량들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상담자는 지금-여기에서 내담자의 중요한 무언가, 예를 들면 대인관계 패턴이 실현될 때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고, 그것의 임상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그 순간에 드러난 내담자의 특성에 즉시성 개입이 필요한가를 평가할 수 있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 개입할지의 계획을 세워 실제로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4.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의 주요한 대인관계 패턴이 재연되고 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다.’, ‘23. 그 순간의 상담 관계의 특성을 내담자가 자신의 일반 대인관계에 적용시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으로 총 5 항목이 해당하며, 즉시성 개입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3. 관계에서 갈등이 잘 다루어질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1. 분리와 독립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이 되어 있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각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 평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각 군집들의 중요도 평정 결과는 7점 만점에 군집 3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이 6.13($SD=0.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군집 1 ‘자신의 체험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음’이 6.04($SD=0.41$), 군집 2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와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음’이 6.00($SD=0.44$)이었으며, 군집 4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이 5.95($SD=0.61$)점으로 가장 낮았다. 군집 분류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21. 진솔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25. 상담자가 그 순간에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대화에 활용할 수 있다.’, ‘4. 즉시성 개입이 상담에서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다.’의 세 문항으로 모두 동일

표 3. 즉시성 개입 사용을 위한 45개의 역량의 항목들과 군집, 중요도 평정

군집	항목	중요도	
		M	M (SD)
군집 1 자신의 체험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음	29 상담자의 ‘역할’ 뒤에 숨지 않고 상담자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내적반응을 온전히 자각할 수 있다.	6.50	6.04 (0.41)
	35 상담자 자신의 긍정적/부정적 감정들을 수용하고 홀딩 할 수 있다.	6.50	
	30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되어 있지 않고 내담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다.	6.38	
	40 관계 속에서 나쁜 사람이 되거나 실수하는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및 대담성을 가지고 있다.	6.38	
	27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담자와 분리된 자아로 기능할 수 있다.	6.25	
	36 상담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거나 방어하지 않는다.	6.25	
	34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내담자의 문제와 구분할 수 있다.	6.13	
	38 개입의 결과와 방향이 예측되지 않는 순간의 모호함과 불안함을 잘 견뎌낼 수 있다.	6.13	
	41 내담자에게 도전과 직면을 할 수 있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	6.13	
	37 상담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	6.00	
	39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이 나와 다르더라도 가치판단 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6.00	
	28 상담관계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 이를 자각하면서도 이것에 휘둘러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5.88	
	42 자신의 감정이 모호하더라도 잘 홀딩하면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다.	5.75	
	33 내담자의 어떠한 표현에도 정서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5.50	
	31 내담자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것보다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4.88	
군집 2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와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음	21 진솔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6.75	6.00 (0.44)
	25 상담자가 그 순간에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대화에 활용할 수 있다.	6.75	
	14 내담자의 표현에 담겨 있는 감정을 포착할 수 있다.	6.25	
	26 내담자의 반응에 대해 순간 순간 순발력을 발휘하여 대화를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다.	6.25	
	45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행동 이면에 자기 실현적인 동기가 있음을 믿는다.	6.25	
	11 내담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5.88	
	13 내담자의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불일치를 알아차릴 수 있다.	5.88	
	19 상담자의 의도를 내담자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잘 전달할 수 있다.	5.88	
	17 내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5.63	
	18 내담자가 비난 받는 느낌이 들지 않게 말할 수 있다.	5.63	
22 내담자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되물어 볼 수 있는 질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5.63		
20 내담자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5.25		

표 3. 즉시성 개입 사용을 위한 45개의 역량의 항목들과 군집, 중요도 평정 (계속)

군집	항목	중요도	
		M	M (SD)
군집 3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	4 즉시성 개입이 상담에서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다.	6.75	
	15 지금·여기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상담자 자신의 신체반응, 경험, 감정 등을 알아차릴 수 있다.	6.63	
	16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의 주요한 대인관계 패턴이 재연되고 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다.	6.63	
	8 상담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갖는 의미를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6.50	
	6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행동 특성과 그것이 타인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25	
	9 즉시성 개입이 내담자에게 필요한 혹은 도움이 되는 작업인지 평가할 수 있다.	6.25	
	23 그 순간의 상담 관계의 특성을 내담자가 자신의 일반 대인관계에 적용시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6.13	6.13 (0.42)
	10 내담자가 현재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평가할 수 있다.	6.00	
	5 내담자가 변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거나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5.88	
	7 내담자 행동의 의도와 행동이 야기하는 결과 간의 모순점을 파악할 수 있다.	5.88	
	24 즉시성 개입할 때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을 고려하여 대상으로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할 수 있다.	5.88	
	44 내담자에게 즉시성 개입의 의도나 목적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5.88	
군집 4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	32 심상 등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관계 패턴을 상담 관계 속에서 보다 생생하게 다룰 수 있다.	5.13	
	43 즉시성 개입을 상담자 자신의 편이나 욕구를 위해서 실시하지 않는다.	6.63	
	3 관계에서 갈등이 잘 다루어질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6.25	5.95 (0.61)
	12 내담자의 반응에 상담자의 어떤 측면이 기여하거나 촉발했는지 알 수 있다.	6.25	
	2 역전이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이 되어 있다.	5.75	
	1 분리와 독립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이 되어 있다.	4.88	

하계 7점 만점에 평균 6.75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31. 내담자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것보다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와

‘1. 분리와 독립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이 되어 있다.’로 모두 7점 만점에 4.88로 평정되었다. 각 항목의 내용과 군집, 중요도 평정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성과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갖춰야 하는 핵심 역량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숙련 수퍼바이저들을 통해 탐색하여 구체적인 역량의 항목들과 그 역량들의 군집,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결과는 개인내적 대 대인관계적 역량 측면과(가로축) 체험 기반 대 이해 기반의 역량 측면(세로축)의 구조를 보였다. 두 축을 기반으로 네 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는데, 개인내적-체험 기반 역량으로 ‘자신의 체험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음’, 대인관계적-체험 기반 역량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와 관계를 조율할 수 있음’, 대인관계적-이해 기반 역량으로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 개인내적-이해 기반 역량으로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이 도출되었다. 먼저 주요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출된 개념도의 차원은 2차원이었고, 가로축이 우측 ‘개인내적 역량’, 좌측 ‘대인관계적 역량’을 나타내었으며, 세로축은 상단 ‘체험 기반 역량’, 하단 ‘이해 기반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먼저, ‘개인내적 역량’과 ‘대인관계적 역량’으로 구성된 가로축은 즉시성 개입을 할 때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계 내외부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가로축의 우측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 경계 내부에서 경계를 명료히 하거나 자기이해와 통찰을 하는 역량들이며, 좌측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 경계 외부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개입하는 역량들이다. 상담자의 성찰, 알아차림, 버려주기, 수용하기 등의 역량들이 상담자 자신의 마음과 내담자와의 관계 모두

에서 필요한 것이다.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도 잘 대응하고 반응하는 역량들이 필요하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호작용하는 때 순간 자신에게 경험되는 다양한 역전의 감정을 잘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에게 치료적으로 반응하는 즉시성 개입의 특성을 나타낸다. 상담자가 자신을 성찰하여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잘 활용하고(Neufeldt, 2004) 역전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면(김준혜, 안현의, 2013; 이미정, 박승민, 2015), 내담자와 진정한 만남(김예실, 이희경, 2020)을 가지며, 긍정적인 치료성고를 만들어 낼 것이다(Gelso, Latts, Gomez, & Fassinger, 2002). 본 연구에서 상담자의 개인내적 역량은 대인관계적 역량과 대등한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어, 즉시성은 이 두 가지 차원의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개입으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로축의 ‘체험 기반 역량’과 ‘이해 기반 역량’은 내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다루는 ‘인식의 차원’을 나타낸다. 인식의 차원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루는 통로로, 정서와 직관을 주로 다루는지 정보와 이성을 주로 다루는지에 따라 전자가 ‘체험 기반’, 후자가 ‘이해 기반’을 의미한다. Wheeler와 D’Andrea(2004)는 초심 상담자들이 즉시성을 꺼려하는 이유가 즉시성의 친밀하고 복잡한 특성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의 ‘인식의 차원’을 나타내는 세로축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도 해야 하는 즉시성의 친밀하고도 복잡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문제들이 상담자의 대인관계적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Egan(1976, p. 203)의 말처럼, 즉시성은 상담자가 단순히 내담자의 말의 내용을 다루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개입이다. 즉시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내용(content)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process)의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하며, 개입에서 상담자의 효과적인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담자의 감정 및 내담자에 대해 상담자가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에 대한 메타적인 인식 등의 상담자의 체험 기반 역량들이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치료적인 반응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 요건이 된다. 이는 Farber(2010)가 제안한 인본주의-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의 상담자 핵심 역량과 비슷한 결과이다. 그는 상담자의 핵심 역량들은 체험적 알아차림을 촉진하는 것과 변화를 위해 치료적 관계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의 근간들을 바탕으로 생겨난다고 하였다. 내담자의 체험적 알아차림은 성장을 위해 핵심적인 촉매제로 작용하는데(Perls, 1973; Rogers, 1961), 이 과정에서 상담자의 주관성(subjectivity)이 핵심적인 원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자기-알아차림 등의 능력들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내담자와의 진솔하고, 협응적이고, 상호작용이며, 담화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담자를 다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Yontef, 2007, p. 20; Farber, 2010에서 재인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체험 그 자체가 주는 정서적 영향에 열린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할 때에는 상담자

가 내담자를 인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내담자에게도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인식의 차원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도출된 군집은 총 네 개였으며, 군집 1 ‘자신의 체험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음’, 군집 2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와 관계를 조율할 수 있음’, 군집 3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 군집 4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으로 도출되었다. 군집 1 ‘자신의 체험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음’은 개인내적-체험 기반 역량으로 상담자 역량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상담자의 소인(disposition)에 속하는 것들이다. Counselor Competencies Scale-Revised(CCS-R, Lambie, Mullen, Swank, & Blount, 2018)에서는 열한 개의 상담자 소인 및 역량들(전문가 윤리, 전문가 행동, 전문적 & 바운더리 유지, 상담 현장과 수업 규칙에 대한 지식 및 준수, 기록 관리 및 과업 완수, 상담 관계에서의 다문화 역량,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통제, 배움과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 및 주도적 태도, 피드백에 대한 개방성, 유연성 및 적응성, 일치성 및 진정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전문적 & 바운더리 유지’와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통제’, 그리고 ‘일치성 및 진솔성’이 군집 1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또한 전문적 소양 척도 학생 버전(the Professional Dispositions Scale-Counseling Student Version; PDS-CSV, Miller et al.,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홉 개의 전문적 소양(인지적, 윤리적/법적, 대인관계적, 개인적 안녕, 개인적-전문적 경계, 전문성, 반응성, 자기-조절, 전문가에 적합한) 중에 군집 1에 해당하는 소양은 ‘개인적-전문적 경계’, ‘반응성’, ‘자기-조절’의 세 가지였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즉시

성 개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담 전체를 위해 필요한 상담자의 소인 중에 특히 상담자의 정서를 다루는 능력과 관계에서 독립성 및 주체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집 2는 대인관계적-체험 기반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와 관계를 조율할 수 있음’으로 즉시성을 실시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상담 관계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상담에서 조율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내적 상태와 소통하고 반영하는 것으로(Talia, Muzi, Lingiardi, & Taubner, 2020), 조율의 상태란 협응적이고 수반한 무의식적 의사소통(Trevarthen, 1993)의 형태를 띤다. 군집 2의 문항들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내적 상태에 대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의미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내담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혹은 상담자 자신의 내적 상태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통 방식은 언어 이상의 것을 포함하여, 비언어적, 정서적, 혹은 우뇌 간 소통(Schore, 1994)의 특성을 띤다. Stern, Krumholz, Johns, Scott, 그리고 Nissim(1985)은 정서적 조율(affective attunement)을 상호주관적 관계의 특성으로 강조하면서, 아이가 어머니와 정서적 조율을 반복하면서 나누는 상호작용의 단위들을 표상화하여 일반화하고, 이를 인간 상호관계의 기본틀로 마련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내담자와 조율하는 역량’은 상호주관성에 기반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담자의 역량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군집 3은 대인관계적-이해 기반의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으로 지금-여기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재연되는 내담자의 특성들을 다룰 수 있는 상담자의 고도의 인지적 능력들을 담고 있다. 지금-여기에서

발생하는 상담자 자신의 경험이나 내담자의 경험을 알아차려 그 경험이 내담자에게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치료적으로 다루기 위해 적절한 개입 및 상담자 반응을 떠올려 실행하는 것은 메타인지적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메타인지는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지식), 하고 있는 것(기술), 인지적 혹은 정서적 상태(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일컫는다(Ridley et al., 2011). 이러한 생각들은 그 자체로 의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비판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Davidson & Sternberg, 1998; Georghiades, 2004; Hacker, 1998), 문제 해결의 구성요소들을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신적인 프로세스와 관련이 높다(Georghiades, 2004; Hacker, 1998). 이러한 메타인지적 속성은 초심 상담자에 비해 숙련 상담자들에게 더 발달된 특성으로서, 숙련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메시지들에 주목하고 데이터를 범주화하며, 정보들을 정확하게 통합하여 임상적인 가설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훨씬 우수하다(Morran, 1986; Skovholt & Ronnestad, 2003). 군집 3의 역량들은 즉시성이 이해하고 사용하기에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는 상위의 상담 기술로서의 특성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들은 인지적 복잡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Morran과 동료들(1995)이 제안했던 구체적인 모델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첫째, 자기 자신과 내담자, 그리고 상담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 둘째, 그러한 정보들을 조직화하고 내담자에 관한 사례개념화와 가설에 통합시키는 것, 셋째, 치료적 개입들을 계획하고, 제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군집 3의 역량들은 다른 군집의 역량들과 비교해 훨씬 즉시성 개입 특수적(specific)이며 즉시성 개입을 성공적으로 실행

하는 공동의 목표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군집 4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은 개인내적-이해 기반 역량으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할 때 필요한 이론적 및 경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Spangler와 동료들(2014)은 상담 수업을 듣는 학부생들에게 즉시성 개입을 강의와 모델링, 실습, 피드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면서 각 방법이 제공된 이후에 즉시성 개입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방법들은 교육이 제공되지 않은 그룹의 학생들과 비교해 학생들의 즉시성 개입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다. 그 중에서 즉시성 개입을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강의 형태는 두 번째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질적인 방법을 통해 보고되었다. 물론,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꼽았던 실습에 비해 덜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지만, 즉시성 개입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충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본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역량’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항목들이 탐색되지는 않았지만, 개인내적-이해 기반 역량으로서의 구조가 도출된 것은 선행연구에서처럼 이 역량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중요도 평정 결과 군집 3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이 6.1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군집 1 ‘자신의 체험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음’이 6.04, 군집 2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와 관계를 조율할 수 있음’이 6.00, 군집 4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이 5.95로 뒤를 이었다. 중요도 평정 결과는 숙련 슈퍼바이저들이 즉시성

을 사용하기 위해 평가와 결정에 필요한 역량이 전반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군집 4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은 가장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집 4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의 경우에는 총 항목의 수가 5개 밖에 되지 않아 10개가 넘는 다른 군집의 항목 수에 비해 확연히 적은 수로 구성되었다. 항목의 수가 다른 범주에 비해 확연히 적은 점은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인터뷰로 항목들을 탐색하는 단계에서부터 슈퍼바이저들로부터 적게 보고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즉시성 개입이 사용하기에 복잡한 고급 기술이면서 동시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담 기술이기 때문에, 단순히 알고 있는 이론적 이해 역량보다 실제로 개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실제적인 역량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군집 3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과 군집 2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와 관계를 조율할 수 있음’의 중요도 평정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근소한 차이지만 군집 3이 군집 2보다 더 높은 중요도 평정 점수를 기록하여, 숙련 슈퍼바이저들이 내담자와 기본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상호작용보다 다양한 상황과 내담자의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재적소를 판단할 수 있는 복잡한 역량을 즉시성 사용에 있어 더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논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즉시성이라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학습 및 교육하기에 어려운 고급 상담 기술에 대해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 역량의 구조를 밝히고 상세하게 탐색했다

는 교육적 함의가 있다. 즉시성 개입을 치료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경계 내외부의 방향성’과 ‘인식의 차원’을 두 개의 주요 축으로 하여, 그에 따라 개인내적-체험 기반 역량, 대인관계적-체험 기반 역량, 대인관계적-이해 기반 역량, 개인내적-이해 기반 역량의 4가지 군집이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들은 총 45항목들로, 그동안 즉시성 훈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연구자들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즉시성 개입이라는 상담의 비교적 구체적인 단위의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규범적으로 서술된 하위역량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하위역량들이 서로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초심 상담자들에게 경청하거나 즉시성을 언급하는 연습을 시켜 이를 능숙하게 만든다고 해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초심 상담자들에게 즉시성 개입을 교육한다면, 기본적으로 상담자는 자신의 체험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역량(군집 1)과 즉시성 개입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군집 4)이 중요한데, 특히 즉시성 개입에서는 내담자와 상호작용하여 조율할 수 있는 능력(군집 2)을 바탕으로 즉시성 개입이 필요한 그 순간 내담자를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군집 3)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구조에 대한 이해를 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내적 역량에 해당하는 군집 1과 군집 4의 역량들은 초심 상담자들이 교육분석이나 자기

성찰 등을 통해서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활용하고, 대인관계적 역량에 해당하는 역량들은 교육 장면에서 실습을 통해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각 군집에 포함된 하위역량들은 초심 상담자들의 훈련과 수련의 구체적인 수행목표(예, ‘21. 진솔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진솔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기’를 연습)와 동시에 수행에 대한 평가의 기준(예, ‘진솔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기’의 수준을 5점 Likert 상에서 평가하기)들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군집 3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은 가장 즉시성 개입 특수적이면서 순간적인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의 역량들에 대해서는 책어록이나 비디오 등의 실습 사례들을 보면서 군집 3의 각 하위역량들을 실행해 보고(예, 15. 지금-여기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상담자 자신의 신체반응, 경험, 감정 등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예, ‘내담자에 대해서 긴장되고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즉시성 개입을 집중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심 상담자들뿐만 아니라 즉시성 개입을 훈련하고 싶은 상담자들 모두에게 비교적 단시간 내에 훈련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즉시성이라는 상담 개입을 교육하기 위해 역량의 측면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상담자 수행의 효과에 대한 기준점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즉시성 개입 자체의 성과나 즉시성 개입 교육의 성과에 관한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airburn과 Cooper(2011)는 상담자의 역량으로의 접근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어

역설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상담자들이 최선의 역량 있는(competent) 전문적 상담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증거-기반적 접근 측면에서 역량으로의 접근이 각 상담자들이 역량 있다고 여겨지는 기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상담 개입에 대한 연구들이 역량 있는 상담 개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Egan(1976)은 상담자들이 즉시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조건으로 인식과 기술, 그리고 용기의 세 가지를 꼽았다. 인식은 즉시성으로 초대하는 여러 가지 상담내의 단서들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 설명하였고, 기술은 공감, 자기-개방, 직면율, 마지막으로 용기는 즉시성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조건들은 분명 즉시성을 사용하기 위해 상담자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러한 선행조건을 바탕으로 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무엇들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량을 향상하게끔 교육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즉시성 개입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즉시성 개입이 기여하는 상담 성과에 대한 연구도 타당성 있게 다루기 어렵다. 반면 본 연구의 항목들은 역량으로 탐색되어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형태로 상담자의 세부적인 수행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상담자들을 즉시성 개입에 있어 역량 있게끔 교육하고, 수행을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타당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즉시성 개입을 사용해 상담성과를 만들어 내는 프로세스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즉시성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즉시성이 상담관계나 상담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왔지만(서영석 외, 2012; Hill et al., 2008; Hill et al., 2018; Kasper et al., 2008;),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본 연구에서는 숙련 수퍼바이저들에게 즉시성 개입을 상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탐색한 결과, 성과를 만들어 내는 즉시성 개입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군집 3 '평가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은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순간인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담자의 현재 상태(10번),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5번),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6번) 등을 평가하여, 내담자에게 상담 관계에서 재연된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을 통찰시키고(23번), 내담자의 의도와 야기되는 결과가 다름을 인식하게 하며(7번), 심상 등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다루는(32번) 방법들을 통해 즉시성 개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즉시성 개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즉시성이 상담성과를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담았다.

먼저, 본 연구는 즉시성을 사용하기 위한 역량들에 대한 초기 연구 단계로서 탐색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즉시성 사용을 위한 역량들을 완전히 포괄적으로 구성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숙련 수퍼바이

저들은 13명으로 비교적 소수에 해당하고, 항목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되지 않은 역량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집 4 '이론적 및 경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구성하는 역량들은 항목수도 적고, 다른 군집에 비해 항목 간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래 일반 및 상담에서의 역량들의 구조들에서 이론적 이해나 지식 등은 기술이나 소인 등의 다른 범주들과 대등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도출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론적 이해 등의 즉시성 개입 역량을 구성하는 범주들을 제시하여 그 범주를 포괄할 수 있는 항목들을 보충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항목들이 즉시성 개입 사용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역량의 수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CCS-R(Lambie et al., 2018)의 경우 상담자의 역량들을 범주별로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동시에 5점 만점으로 평가할 때 1점부터 5점까지 각각의 점수의 수준들이 해당 역량을 어느 수준으로 사용할 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상담 기술 및 치료적 조건 영역에서 비언어적 기술 역량은 몸의 자세, 눈맞춤, 몸의 위치, 내담자로부터의 거리, 목소리 톤, 말의 속도, 침묵의 사용 등으로 5점 만점의 경우 상담자가 효과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이 있고, 연결감과 공감을 전달하는 것이 입증될 때에, 1점의 경우 상담자가 형편없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갖고 있어서 내담

자를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듯한 인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될 때 매겨지도록 안내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즉시성 개입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도 항목 별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지침이 보강되어 제공된다면 상담자들의 교육과 훈련에 있어 더욱 명확한 기준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들은 탐색적인 단계로 해당 역량들이 즉시성 개입을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충분히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도출된 항목들이 척도의 형태로 다듬어지고 상담자들에게 실시되어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예실, 이희경 (2020).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의 진정성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09-638.
- 김준혜, 안현의 (2013). 상담자 발달수준, 마음챙김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인간이해, 34(2), 95-109.
- 라수현 (2022). 교정적 관계 경험의 개념 및 실증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상담학연구, 23(4), In press.
- 서영석, 조화진, 고은영, 최바울, 조민아, 김민선, 안하얀, 백근영, 최영희, 이정선 (2013). 상담자 즉시성의 유형, 사용 이유 및 내담자의 반응. 상담학연구, 14(4), 2351-2373.
- 서영석, 조화진, 조민아, 김민선, 최바울, 고은영, 안하얀, 백근영, 최영희, 석분옥, 이정

- 선, 민경화, 김효주, 박준호 (2012). 상담자 즉시성이 상담회기평가 및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회기내담자상담자 3 수준 다층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753-780.
- 이미정, 박승민 (2015). 상담수련과정에서상담자의 자기 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6(1), 1-29.
- Barber, J. P., Sharpless, B. A., Klostermann, S., & McCarthy, K. S. (2007). Assessing intervention competence and its relation to therapy outcome: A selected review derived from the outcome literatur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8(5), 493-500.
- Binder, J. L. (2004). *Key competencies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Clinical practice beyond the manual*. New York, NY: Guilford.
- Borkovec, T. D., & Sharpless, B. (2004).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ringing cognitive-behavioral therapy into the valued present. In S. C. Hayes, V. M. Follette, & M. M. Linehan (Eds.), *Mindfulness and acceptance: Expanding the cognitive-behavioral tradition* (pp. 209-242). Guilford Press.
- Byars-Winston, A. M., & Fouad, N. A. (2006). Metacognition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Expanding the culturally appropriate career counseling model.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3), 187-201.
- Castonguay, L., & Hill, C. E. (Eds.) (2012). *Transformation in psychotherapy: Corrective experiences across cognitive behavioral, humanistic, and psychodynamic approache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rkhuff, R. R., Pierce, R. M., & Cannon, J. R. (1977). *The art of helping III*.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s.
- Davidson, J. E., & Sternberg, R. J. (1998). Smart problem solving: How metacognition helps. In D. J. Hacker, J. Dunlosky, & A. C. Graesser (Eds.), *Metacognition in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pp. 47-68). Mahwah, NJ: Lawrence Erlbaum.
- Egan, G. (1976). *Interpersonal living: A skills-contract approach to human-relations training in groups*. Monterey, CA: Brooks/Cole.
- Egan, G. (2013). *The skilled helper: A problem-management and opportunity-development approach to helping*. Cengage Learning.
- Fairburn, C. G., & Cooper, Z. (2011). Therapist competence, therapy quality, and therapist train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6-7), 373-378.
- Farber, E. W. (2010). Humanistic-existential psychotherapy competencies and the supervisory proces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7(1), 28-34.
- Fauth, J., Gates, S., Vinca, M. A., Boles, S., & Hayes, J. A. (2007). Big ideas for psychotherapy training.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4(4), 384-391.
- Fosha, D. (2006). Quantum transformation in trauma and treatment: Traversing the crisis of healing chang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5), 569-583.
- Gelso, C. J., Latts, M. G., Gomez, M. J., & Fassinger, R. E. (2002).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nd therapy outcome: An initial evalu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7),

- 861-867.
- Georghiades, P. (2004). From the general to the situated: Three decades of metacogn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6, 365-383.
- Goodyear, R. K., Tracey, T. J.,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an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 Hacker, D. J. (1998). Definitions and empirical foundations. In D. J. Hacker, J. Dunlosky, & A. C. Graesser (Eds.), *Metacognition in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pp. 1-23).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azler, R. J., & Barwick, N. (2001). *Therapeutic environment*.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Henry, W. P., Strupp, H. H., Butler, S. F., Schacht, T. E., & Binder, J. L. (1993). Effects of training in time-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Changes in therapis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3), 434-440.
- Hill, C. E. (2014). *Helping skills: 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 (4th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Hill, C. E., Kellems, I. S., Kolchakian, M. R., Wonnell, T. L., Davis, T. L., & Nakayama, E. Y. (2003). The therapist experience of being the target of hostile versus suspected-unasserted client anger: Factors associated with resolution. *Psychotherapy Research*, 13(4), 475-491.
- Hill, C. E., Kivlighan III, D. M., Rousmaniere, T., Kivlighan Jr, D. M., Gerstenblith, J. A., & Hillman, J. W. (2020). Deliberate practice for the skill of immediacy: A multiple case study of doctoral student therapists and clients. *Psychotherapy*, 57(4), 587-597.
- Hill, C. E., & Knox, S. (2009). Processing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Psychotherapy Research*, 19(1), 13-29.
- Hill, C. E., Knox, S., & Pinto-Coelho, K. G. (2018). Therapist self-disclosure and immediacy: A qualitative meta-analysis. *Psychotherapy*, 55(4), 445-460.
- Hill, C. E., Sim, W., Spangler, P., Stahl, J., Sullivan, C., & Teyber, E. (2008). Therapist immediacy in brief psychotherapy: Case study II.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5(3), 298-315.
- Horvath, A. O., & Bedi, R. P. (2002). The alliance. In J. C. Norcross (Ed.),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hat work: Therapist contributions and responsiveness to patients* (pp. 37-69):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orvath, A. O., Re, A. C. D., Flückiger, C., & Symonds, D. (2011).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In J. C. Norcross (Ed.),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hat work: Evidence-based responsiveness* (pp. 25-69). Oxford University Press.
- Ivey, A. E. (1971). *Microcounseling: Innovations in interviewing training*. Charles C Thomas.
- Iwakabe, S., & Conceicao, N. (2016). Metatherapeutic processing as a change-based therapeutic immediacy task: Building an

- initial process model using a task-analytic research strategy.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6(3), 230-247.
- Jennings, L., Hanson, M., Skovholt, T. M., & Grier, T. (2005). Searching for mastery.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7(1), 19-31.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 Sage.
- Kaslow, N. J. (2004). Competencies in profession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9, 774-781.
- Kaslow, N. J., Borden, K. A., Collins, F. L., Forrest, L., Illfelder-Kaye, J., Nelson, P. D., Rallo, J. S., Vasquez, M. J. T., & Willmuth, M. E. (2004). Competencies conference: Future directions in education and credentialing in professional psych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0, 699-712.
- Kasper, L. B., Hill, C. E., & Kivlighan Jr, D. M. (2008). Therapist immediacy in brief psychotherapy: Case study I.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5(3), 281-297.
- Kruskal, J. B. (1964).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ing goodness of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29(1), 1-27.
- Kuutmann, K., & Hilsenroth, M. J. (2012). Exploring in session focus on the patient-therapist relationship: Patient characteristics, process and outcome.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9(3), 187-202.
- Lambie, G. W., Mullen, P. R., Swank, J. M., & Blount, A. (2018). The counseling competencies scale: Validation and refinement.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51(1), 1-15.
- Leigh, I. W., Smith, I. L., Bebeau, M. J., Lichtenberg, J. W., Nelson, P. D., Portnoy, S., Rubin, N. J., & Kaslow, N. J. (2007). Competency assessment model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8, 463 - 473.
- Marrelli, A. F., Tondora, J., & Hoge, M. (2005). Strategies for developing competency models.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32, 533-561.
- Mayotte-Blum, J., Slavin-Mulford, J., Lehmann, M., Pesale, F., Becker-Matero, N., & Hilsenroth, M. (2012). Therapeutic immediacy across long-term psychodynamic psychotherapy: An evidence-based case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27-40.
- Miller, S. M., Larwin, K. H., Kautzman-East, M., Williams, J. L., Evans, W. J., Williams, D. D., Abramski, A. L., & Miller, K. L. (2020). A proposed definition and structure of counselor disposition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53(2), 117-130.
- Morran, D. K. (1986). Relationship of counselor self-talk and hypothesis formulation to performance lev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95-400.
- Morran, D. K., Kurpius, D. J., Brack, C. J., & Brack, G. (1995). A cognitive skills model for counselor training and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4), 384-389.
- Neufeldt, S. A. (2004). *Critical factors in supervision: The patient, the therapist, and the supervisor*. Core processes in brief psychodynamic

- psychotherapy: Advancing effective practice, 325-341.
- Ogden, P., Pain, C., Minton, K., & Fisher, J. (2005). Including the body in mainstream psychotherapy for traumatized individuals. *Psychologist-Psychoanalyst*, 25(4), 19-24.
- Parry, S. R. (1996). The quest for competencies. *Training*, 33, 48-56.
- Perls, F. (1973). *The gestalt approach & eye witness to therapy*. Science & Behavior Books.
- Rhodes, R. H., Hill, C. E., Thompson, B. J., & Elliott, R. (1994). Client retrospective recall of resolved and unresolved misunderstanding ev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4), 473-483.
- Ridley, C. R., Baker, D. M., & Hill, C. L. (2001). Critical issues concerning cultural competen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6), 822-832.
- Ridley, C. R., Mollen, D., & Kelly, S. M. (2011). Beyond microskills: Toward a model of counseling competen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9(6), 825-864.
- Rogers, C. R. (1961). The process equation of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5(1), 27-45.
- Safran, J. D., & Muran, J. C. (2000). Resolving therapeutic alliance ruptures: Diversity and integr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2), 233-243.
- Safran, J. D., Muran, J. C., Samstag, I. W., & Stevens, C. (2002). *Repairing alliance ruptures*. In J. C. Norcross (Ed.),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hat work: Therapist contributions and responsiveness to patients* (pp.235-25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ore, A. N. (1994). *Affect regulation and the origin of the self: The neurobiology of emotional development*. Mahwah, NJ: Erlbaum.
- Schore, A. N. (2005).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the developing right brain: Linking developmental neuroscience to pediatrics. *Pediatrics in Review*, 26(6), 204-217.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2003). Struggles of the novice counselor and therapis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 44-58.
- Spangler, P. T., Hill, C. E., Dunn, M. G., Hummel, A. M., Walden, T. T., Liu, J., Jackson, J. L., Ganginis Del Pino, H. V., & Salahuddin, N. M. (2014). Training undergraduate students to use immediac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2(6), 729-757.
- Stein, D. M., & Lambert, M. J. (1995). Graduate training in psychotherapy: Are therapy outcomes enhance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182-196.
- Stern, B. J., Krumholz, A., Johns, C., Scott, P., & Nissim, J. (1985). *Sarcoidosis and its neurological manifestations*. *Archives of Neurology*, 42(9), 909-917.
- Talia, A., Muzi, L., Lingiardi, V., & Taubner, S. (2020). How to be a secure base: Therapists'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their link to attunement in psychotherap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2(2), 189-206.
- Teyber, E. (2006).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A relational approach* (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Truax, C. B., & Carkhuff, R. (2007). *Toward*

-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raining and practice*: Transaction Publishers.
- Trevarthen, C. (1993). The self born in intersubjectivity: The psychology of an infant communicating. In U. Neisser (Ed.), *The perceived self: Ecological and interpersonal sources of self-knowledge* (pp. 121-17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ock, A. (1980). Immediacy in counseling: Recognizing clients' unspoken message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59(3), 168-172.
- Vakoch, D. A., & Strupp, H. H. (2000). The evolution of psychotherapy training: Reflections on manual-based learning and future alternativ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309-318.
- Van der Kolk, B. A. (2006). Clinical implications of neuroscience research in PTSD. *Annals-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71(1), 277-293.
- Wallin, D. J.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Guilford press.
- Wheeler, C. D., & D'Andrea, L. M. (2004). Teaching counseling students to understand and use immediacy. *Th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3(2), 117-128.
- Yalom, I. D. (2010). *치료의 선물* (최웅용, 천성문, 김창대, & 최한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2에 출판)
- Yontef, G. (2007). The power of the immediate moment in Gestalt therapy.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7(1), 17-23.

원 고 접 수 일 : 2022. 01.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3. 14
게 재 결 정 일 : 2022. 06. 14

Concept Mapping of Counseling Competencies for Immediacy

Soohyun La¹⁾

Changdai Kim²⁾

¹⁾CHA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 Professor

²⁾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 Professor

Immediacy is an advanced counseling technique that directly utilizes the counseling relationship to produce counseling outcomes. However, it is challenging to train counselors about immediacy due to its complex and intimate nature. Therefore, we explored competencies for immediacy through the concept mapping method. Eight supervisors rated the similarity and importance of the forty-five items derived from interviews with ten experienced supervisors. A two-dimensional concept map wa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after conducting multidimensional scale and cluster analysis. The horizontal axis was 'Intrapersonal competency'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The vertical axis was 'Experience-based competency' and 'Understanding-based competency'. The four clusters were 'Accept and regulate one's experiences' based on the intrapersonal & experience-based competency; 'Attune relationship with clients through interaction' based on the interpersonal & experience-based competency; 'Choose and implement interventions upon evaluation' based on the interpersonal & understanding-based competency; and 'Have theoretical and empirical understanding.' based on the intrapersonal & understanding-based competency. Finally, we discussed the relational meaning of immediacy, the study's implic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and training, as well as its limitations.

Key words : Immediacy, Counselor education, Counseling competency, Counseling outcome